

농촌여성가공구락부의 사업활동과 금후의 가능성

— 일본 兵庫縣下의 여성가공구락부를 중심으로 —
(현황)

노 채 영 (목포대학교 소비자·아동·주거학과)

서 론

최근, 일본에서는 식생활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하여, 농촌 각 지역의 특징있는 농산물을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높인 농산 가공품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지역 활성화의 하나의 유력한 방책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구락부를 형성하고, 특산품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공활동에의 주체적인 참여가 일본 농촌의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활성화에 대한 여성구락부활동의 공헌이 주목되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일본 兵庫縣下에서 농산물가공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가공구락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兵庫縣下의 농촌여성가공구락부의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로지트모델을 사용하여 금후의 농촌여성구락부의 농산물활동의 계속 가능성에 관해서 계량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그 규정요인을 究明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의 개요 및 데이터의 처리

본 조사에서는 일본의 兵庫縣下의 여성구락부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25개 가공구락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생활개선실행구락부에서 39부, 그 외의 여성구락부에서 24부가 회수되어 총 회답수는 63부, 회수율은 50.4%였다. 여기서 농촌여성가공구락부의 활동의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의 집계는 생활개선실행구락부와 그 외의 여성구락부로 나누어서 정리하기로 한다. 이와같이 兩者를 나누어

표 1. 방정식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후보

변수명	정 의	변 수 내 용
종속변수		
CNT	금후 10년간 농산가공활동의 계속 가능성	「YES」=1, 「NO」=0
독립변수		
구락부의속성		
GRP	구락부의 분류	「생활개선실행구락부」=1, 「그 외의 여성구락부」=0
NMB	구성원의 수	수치데이터
AGE	구성원의 연령구성	수치데이터
YER	구락부가 농산가공활동을 시작한 시기	수치데이터
CPR	법인화의 계획	「이미 했다」=1, 「예정이다」=2, 「계획이 없다」=3
RVN	1년간의 매상금액	수치데이터
MIX	농산가공을 통한 다른 사업과의 경영유무	「YES」=1, 「NO」=2
EST	농산가공시설의 유무	「있다」=1, 「없다」=0
가공기술		
TCH1	가정에서 전해오는 생활기술을 살리고 있다	"
TCH2	주변의 특별기술보유자의 지도를 받고 있다	"
TCH3	생활관계보급원의 지도를 받고 있다	"
TCH4	농협의 생활지도원의 지도를 받고 있다	"
TCH5	縣의 가공기술센터의 지도를 받고 있다	"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PRB1	원재료가 확보되지 않는 일	"
PRB2	가공시설의 규모확대가 곤란한 일	"
PRB3	가공기술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일	"
PRB4	신제품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일	"
PRB5	후계자가 길러지지 않는 일	"
PRB6	구성원의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일	"
PRB7	구성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	"
PRB8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지 않는 일	"
PRB9	소비자요구의 파악이 곤란한 일	"
PRB10	판로확대가 어려운 일	"
PRB11	자금이 부족한 일	"
PRB12	가공관계의 정보입수가 곤란한 일	"
PRB13	구성원의 경영에 관해서 진단분석이 되지 않는 일	"

자료 :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작성

정리하는 이유는, 前者는 自家消費를 중심으로 한 「보람형」 또는 「보람창조형」의 구락부가 많고, 반드시 농산가공 그 자체를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구락부가 많은 반면, 後者는 「지역사회형」 또는 「산업진흥형」의 구락부가 많고 농산가공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구락부가 많은 편이어서 양자의 사업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농산가공활동이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및 지역농업의 활성화 등에 큰 역할을 해 내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활동의 계속성이 기대되는 농촌여성가공구락부의 계속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질적반응모델의 하나인 로지트모델을 이용하여 행동방정식을 설정하고 그 활동이 계속되게 하는 규정요인을 밝힌다.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데이터 가운데 분석에 필요한 항목에 회답한 55샘플을 선정하였으며, 방정식의 추정은 Quantative Micro Software사의 Econometric View(Version 2.0)을 이용하였다.

표 2. 농산가공활동의 계속에 대한 행동방정식의 추정결과

	변 수 명	계수	t값
RVN	1년간의 매상 금액	0.00116	1.55
MIX	농산가공을 통한 다른 사업과의 경영유무	3.38777	2.42
TCH5	현의 가공기술센터의 지도를 받고 있다	1.16604	1.36
PRB2	가공시설의 규모확대가 곤란한 일	-2.63073	-1.44
PRB5	후계자가 길러지지 않는 일	-2.48925	-3.19
PRB6	구성원의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일	-4.37086	-2.14
PRB11	자금이 부족한 일	-2.20804	-1.84
PRB13	구성원이 경영에 관해서 진단분석이 되지 않는 일	-2.33594	-1.41

자료 :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작성

결 론

본 보고에서는 일본의 兵庫縣下에서 농산가공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구락부의 활발한 활동이 금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 질 것인지에 관한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한 계량분석의 결과에서 밝혀진 농산가공활동의 계속의 규정요

인, 특히 저해요인에 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공시설의 규모확대가 곤란한 일, 둘째, 후계자를 길러 낼 수 없는 일, 셋째, 구성원의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일, 넷째, 자금이 부족한 일, 다섯째, 구성원이 경영에 관해서 진단분석이 되지 않는 일의 다섯 가지점을 들었다. 후계자 문제가 농산가공활동을 계속하는 데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요인일 뿐 아니라, 특히 자금면에서의 문제가 크로즈업되어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이 금후의 과제로 결론내릴 수 있다. 또한, 구성원의 주체성은 여성구락부가 농산가공활동을 起業으로써 성립시켜 갈 경우에 더욱 중요하여, 여성자신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일이 의의가 있다는 관점에서 구성원의 주체성을 고양하는 체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농촌의 여성구락부의 활동은 농업을 둘러싼 어려운 조건속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및 농업의 활성화에도 공헌을 하고 있다. 여성구락부의 활동은 자신들이 주체적 입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매력있는 농촌지역을 창출해 내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구락부의 활동의 다양한 전개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가공활동의 계속의 규정요인, 특히 저해요인을 해결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류활동과 이벤트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지역 뿐 아니라 지역을 뛰어 넘은 소비자의 지원태세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다면적인 지원이 여성구락부의 활동을 비약적으로 발전되도록 가능하게 할 것이다.